시흥에 아쿠아리움 들어서나

해수부, 시화MTV에 대규모 관상어 생산·유통단지 조성

(시흥타임즈=우동완 기자) 해양수산부가 시흥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시화 MTV)에 '관상어 생산·유통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13일 오운열 해수부 어촌양식 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관상어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 할 예정으로 오는 2019년까지 시흥시 시화MTV에 대규모 관상어 생산, 유통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한국관상어협회 및 시흥시 등과 함께 시화MTV에 23,000㎡ 규모의 용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협회와 관련 지자체 등이 부지 매입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가계약 단계에 와있다"고 전했다.

관상어 생산·유통 단지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700억 원으로 해수부가 친환경 생산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1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550억 원은 관상어협회(토지매입비· 250억 원)와 민간사업자들(유통단지·300억 원)에게 투자를 받아 조달할 계획이다.

투자가 끝나면 해수부는 내년 말 관상어 생산·유통의 단지 착공에 들어가 2019년 상반기 완공하게 된다.

생산·유통단지는 유통동, 양식동, 입주동, 체험 및 전시동, 공원 등으로 꾸며진다. 생산에서 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며, 일반 소비자들이나 관람객들도 상시 방문해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관상어는 개, 고양이 함께 3대 애완동물의 하나로 국내 시장규모는 4100억 원에 이르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년 평균 7~8%의 성장을 하는 유망사업이다. 세계 시장까지 포함하면 45조원에 이른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유통단지가 완공되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시화방조제·오이도 등과 연계된 관광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정왕동 거주 김모씨(37)는 "요즘 관상어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정왕동 인근에 관상어 관련 시설과 전시장 등이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종합

2016 관광두레사업, 시흥시 주민 사업체 모집 위한 설명회 개최

시흥시는 2016년 관광두레사업 주민사업체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흥시청 4층 글로벌센터에서 개최한다.

관광두레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방식의 지역 관광발전 모델로서 관광사업의 창업과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발성과 지속 가능성을 갖춘 사업체로의 성장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알선, 체험, 식음료, 기념품, 숙박, 레저스포츠, 문화예술, 복합 등의 사업을 창업 예정이거나 경영개선을 희망하는 주민 포함 5인 이상 공동체면 지원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3년간이며 금년도에는 관광두레 주민공동체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2차년도는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 및 경영개선 유도, 3차년도는 안정 성장 기반 구축 및 관광두레 네트워크 결성과 운영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으로는 선진지 견학, 창업실무교육, 맞춤형 멘토링, 창업실무,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 등 창업과 사업전개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관광두레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역 관광활성화와 주민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공모결과 시흥시를 포함 8개 지자체가 2016년도에 선정되었다.

관광두레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는 설명회 참석으로 관광두레 주민공동체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사업지원을 통해 시흥시 관광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리라 기대한다.

시흥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 '양호'

미흡한 부분 대해서 개선 추진할 것

시흥시가 지난 6월 15일 출자·출연기관(기관장 포함)의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가 모두 '양호'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성과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하여 각각 (재)시흥산업진흥원 기관평가와 시흥산업진흥원장 및 시흥시교육청소년재단 이사장의 기관장평가로 진행되었다.

평가결과 (재)시흥산업진흥원은 경영전략, 경영관리, 경영성과 3가지 지표를 평가하여, 총점 88.98로 전년대비 1점이 하락하였으나, A등급으로 '양호'를 얻었다. 특히 평가단에서는 '시흥산업진흥원이 신생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간에 다양한 경영의사 결정기구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과와 관련 공무원 등이 진흥원 경영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기관장 성과계약서 경영목표 달성도를 평가한 기관장 평가에서는 각각 시흥산업진흥원장이 총점 90.28점, 시흥교육청소년재단 이사장이 88.33점으로 A등급에 해당되는 '양호'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시흥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한 분야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관 및 기관장 평가편람의 혁신지표 반영, 계량지표 보완 등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춘 체계적인 평가편람을 마련하는 등 향후 기관 및 기관장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2017년부터 기관평가 대상이 되는 시흥매화산단개발주식회사의 평가편람은 기관특성을 반영하고 성과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지방재정문제, 지방정부와 협의 통해 해결해야"

경기도 시장·군수들, 이재명 성남시장 단식 중단 촉구

김포, 군포, 광명, 수원, 시흥, 화성 등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단식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시장은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으로, 16일 단식 10일째에 돌입했다.

수원, 시흥 등 경기도 시장·군수들은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상생의 방안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혁안 발표 후 지방정부들과 시민들은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정부는 실질적 대화 없이 브리핑과 언론 등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을 '부자도시', '가난한 도시' 프레임으로 묶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연히 지방정부와 협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을 모색했어야만 했다. 더 이상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민관 함께 만든다

시흥시 평생학습 시즌2 '평생학습 와글와글 토론회' 개최

시흥시는 지난 15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평생학습 와글와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선정 10주년을 맞아 평생학습에 참여하고, 함께 한 사람들과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설계하는 '평생학습 Season 2'를 열기 위한 준비과정의 하나로 민·관·전문가가 함께 학습을 통해 만들어가는 학습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체 ▲일자리 ▲복지 ▲공교육 ▲시민력 ▲문화 ▲평생교육 총 7개영역으로 나누어 각 분야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오픈스페이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영역별 종사자,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자의 여러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평생학습으로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며 평생학습 이끄미 역할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가 하면, 일자리 분야에 참여했던 한 시민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자리에 관심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끼리 일자리와 학습에 대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고충사항도 공감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더불어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 시스템이 구축되면 좋겠다는 바람도 덧붙여 말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여러 차례의 내부회의와 학습, 각 분야 활동가들과의 회의를 갖기도 했는데, 오는 8월까지 시의 평생학습 season2 준비를 위한 '돌아보고, 탐색하고, 설계하는 과정'을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참여하여 함께 학습하는 모임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계획에 맞춰 6월 24일에 공동체 분야 학습모임을 시작으로 7개 영역별 학습모임과 워크숍을 통해 실천과제를 민·관·전문가가 함께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으로까지 연계해 나갈 계획으로, 시의 한 관계자는 '물음표혁명'이라는 책을 인용하며, 학습 거버넌스가 "삶 속에서 머리에는 물음표, 가슴에는 느낌표를 새길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고민, 그리고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시는 지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상상하고, 전파하며, 새로운 학습문화를 만들어 갈 주체로서 '평생학습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있는데, 학습 거버넌스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평생학습 서포터즈'로 활동 가능하다.

평생학습 서포터즈와 학습거버넌스에 대한 내용은 평생학습과(☎031-310-2505)로 문의하면 된다.

시흥 "주거취약계층에 고효율 보일러를…"

시흥시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저소득가정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무료로 단열과 창호, 바닥배관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사업 등이 추진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평균 150만원이며 최대 25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시는 2007년부터 735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나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일반 저소득가정 등 1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주거급여자 중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동 사업을 3년 이내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과 약과 주변인 추천, 30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1차 신청을 받고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및 경제정책과(☎310-3674)와 주소지 동주민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311-2203)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시흥타임즈 기사제보: estnews@naver.com

발행·편집인: 홍성인 편집장: 우동완 인쇄인: 현재오

우135-955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418번길 10, 203호(정왕동)

구독문의/대표번호: 031-498-4404 FAX: 031-498-4403

기사 담당자: 홍성인 대표기자: 010-5402-4404(hsi9416@gmail.com)

우동완 편집장: 010-2499-4452(wooisaac20@gmail.com)

등록번호: 경기다50513 등록일: 2016년 2월16일 창간일: 2016년 3월 1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 부 1,000원

시흥타임즈 기자들의 다짐

시흥 타임즈 기자일동은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띠고 있다. 우리는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의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 문화 창달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건강한 역사관과 세계관을 갖추고 기자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기자에게 요구되는 투철한 직업윤리를 다짐하기 위해 다음의 행동 기준을 정하고 이의 준수와 실천을 선언한다. 아래 내용은 한국기자협회 기자들이 스스로 정한 실천 기준들과 같다.

1 언론자유 수호
2 공정보도
3 품위유지
4 정당한 정보수집
5 올바른 정보사용
6 사생활 보호
7 취재원 보호
8 오보의 정정
9 갈등·차별 조장 금지
10 광고·판매활동의 제한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하여,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우리는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

우리는 취재과정에서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여, 기록과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취재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를 보도의 목적에만 사용한다.

우리는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원을 보호한다.

우리는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사인하고, 신속하게 바로 잡는다.

우리는 취재의 과정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계층·종교·성·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속회사의 판매 및 광고문제와 관련, 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시흥 타임즈 기자 일동